

보도시점 2025. 3. 30.(일) 낮12시 배포 2025. 3. 128.(화금) 14:30

한국, 5대 특허강국 중 국제특허출원(PCT) 성장률 1위!

- 한국 국제특허출원, 27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5년 연속 세계 4위 -
- 상위 5대 기업 중 한국 기업 2개, 상위 20대 대학 중 한국 대학 4개 포함 -
- 한국, 국제디자인출원(헤이그 디자인 출원)에서도 세계 3위를 차지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2024년 한국의 국제특허출원(PCT)*이 전년(2023년) 대비 7.1% 증가해, 2020년 독일을 제치고 5위에서 4위로 올라선 이래 5년 연속 세계 4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년도대비 국제특허출원(PCT) 증가율은 미국(-2.8%), 중국(0.9%), 일본(-1.2%), 독일(-1.3%) 등 5대 특허강국 중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제특허출원, (Patent Cooperation Treaty.) : 하나의 특허출원서 제출을 통해 복수의 국가에 특허 출원한 효과를 부여하는 국제특허출원제도

** 우리나라 PCT 출원순위 : 5위('10~'19) → 4위('20~'24)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따르면, 2023년 감소*했던 전 세계 국제특허출원은 1년 만에 반등(273,900건, 전년대비 0.5%)하였고, 마드리드 상표출원(65,000건, 전년대비 1.2%)과 헤이그 디자인출원(9,454건, 전년대비 10.3%)도 모두 증가하여, 전 세계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자사 제품을 보호하고 사업화하기 위하여 국제출원서비스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3년 국제특허출원은 272,420건으로 2022년 대비 -1.8%

<한국 국제특허출원(PCT), 27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5년 연속 세계 4위>

한국의 국제특허출원(PCT) 출원은 1998년부터 27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2024년 23,851건(전년대비 7.1%)을 기록하여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5년 연속 세계 4위를 차지하였다. 5위권 내에서 한국, 중국(70,160건, 전년대비 0.9%)을 제외한 미국, 일본, 독일의 출원은 모두 감소하여 한국의 성장세가 전 세계 5대 특허강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PCT 출원 상위 5대 기업으로 삼성전자(2위, 4,640건)와 LG전자(4위, 2,083건) 등 우리기업 2개사, 화웨이(1위)와 CATL(5위) 등 중국기업 2개사, 퀄컴(3위) 등 미국기업 1개사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삼성전자는 국제특허출원(PCT) 출원이 전년대비 18.2% 증가하여 전 세계 상위 10대 기업 중 가장 높은 출원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LG전자도 작년 6위에서 2계단 상승한 4위를 차지하였다.

국제특허출원(PCT) 출원 상위 20대 대학에 우리나라는 서울대(5위), 한양대(15위), 고려대(18위), 연세대(20위) 등 4개가 포함되었다.

<한국, 마드리드 상표출원 세계 9위, 헤이그 디자인 출원 세계 3위를 차지>

우리기업의 '24년 마드리드 상표출원은 2,346건(전년대비 12.1%)으로 전년과 동일한 세계 9위를 기록했으며, 2020년 이후 최근 5년간 평균 증가율도 상위 10개국 중 유일하게 두 자리 수 성장률을 보였다.

한편, 한국의 '24년 헤이그 디자인출원은 892건(전년대비 8.1%)으로,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전년 동)를 차지했으며, 독일(4위), 프랑스(5위), 스위스(6위), 이탈리아(7위), 일본(8위) 등이 뒤를 이었다.

특허청은 해외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기업의 국제 지식재산권 확보 및 분쟁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특허청-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인력교환 프로그램으로 한국 특허청에 처음으로 파견된 WIPO 본부 직원과 함께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또한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위해 8개국 10개소 거점형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통해 40개국 현지에서 지식재산권 상담 및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2024.12. 4.(수) WIPO 서비스 설명회, 2025. 2. 5.(수) WIPO 분쟁조정서비스 설명회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우리기업의 2024년 국제 지식재산권 출원이 증가한 것은 우리기업이 참신한 아이디어와 혁신의 결과물인 지식재산을 해외시장에서 보호받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하고 “특허청은 우리기업이 ‘명품특허’를 바탕으로 해외에서도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국제지식재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 2024년 국제출원제도 이용현황(PCT, 마드리드, 헤이그)

담당 부서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국제협력과	책임자	과 장	이승관 (042-481-5063)
		담당자	서기관	강희만 (042-481-8766)

① 국별 PCT 출원 규모

순위	국가	출원 규모	
		'23년	'24년
1	중국	69,527	70,160 (▲0.9%)
2	미국	55,618	54,087 (▼2.8%)
3	일본	48,992	48,397 (▼1.2%)
4	한국	22,277	23,851 (▲7.1%)
5	독일	16,944	16,721 (▼1.3%)
6	프랑스	7,911	8,125 (▲2.7%)
7	영국	5,567	5,861 (▲5.3%)
8	스위스	5,398	5,324 (▼1.4%)
9	인도	3,725	4,552 (▲22.2%)
10	네덜란드	4,256	4,310 (▲1.3%)
총합		272,416	273,900 (▲0.5%)

② PCT 다출원 기업 현황

순위		기업	건수		국가
'24	'23년 대비		'23년	'24년	
1	-	화웨이	6,494	6,600	중국
2	-	삼성전자	3,924	4,640	한국
3	-	퀄컴	3,410	3,848	미국
4	2 ↑	LG전자	1,887	2,083	한국
5	3 ↑	CATL	1,799	1,993	중국
6	1 ↓	BOE Technology	1,988	1,959	중국
7	3 ↓	미쓰비시 전기	2,152	1,956	일본
8	6 ↑	샤오미	1,603	1,889	중국
9	2 ↓	에릭슨	1,863	1,886	스웨덴
10	-	일본전신전화	1,760	1,877	일본
13	4 ↑	LG 에너지솔루션	1,423	1,452	한국
44	4 ↑	LG 화학	444	477	한국

3 대학별 PCT 출원 현황(상위 20대 대학)

구분	대학명	출원건수		순위 변동	구분	대학명	출원건수		순위 변동
		'23년	'24년				'23년	'24년	
1	캘리포니아 주립대(美)	531	519	-	11	쑤저우대(中)	332	127	↓ 9
2	텍사스대(美)	217	216	↑ 2	12	동경대(日)	128	120	↑ 1
3	칭화대(中)	209	188	↑ 2	13	동남대(中)	120	114	↑ 2
4	저장대(中)	240	175	↓ 1	14	오사카대(日)	132	111	↓ 3
5	서울대(韓)	168	170	↑ 3	15	한양대(韓)	112	109	↑ 4
6	존스홉킨스대(美)	141	167	↑ 3	15	북경대(中)	85	109	↑ 15
7	스탠퍼드대(美)	180	162	↓ 1	17	도호쿠대(日)	120	107	↓ 1
8	MIT(美)	170	161	↓ 1	18	고려대(韓)	131	105	↓ 6
9	미시건대(美)	115	150	↑ 9	19	플로리다대(美)	105	102	↑ 1
10	싱가폴국립대	139	130	-	20	연세대(韓)	103	101	↑ 2

* 카이스트 25위(전년 20위), 가톨릭대 30위(전년 26위)

4 국가별 마드리드 상표 출원 규모

순위	국가	출원 규모		5년 평균 증가율
		'23년	'24년	
1	미국	10,991	11,270 (▲2.5%)	▲2.2%
2	독일	6,618	6,449 (▼2.6%)	▼3.6%
3	중국	5,484	5,828 (▲6.3%)	▼0.9%
4	프랑스	4,271	4,211 (▼1.4%)	▼1.1%
5	영국	3,812	3,736 (▼2.0%)	▲1.3%
6	스위스	3,285	3,486 (▲6.1%)	▼1.3%
7	일본	2,854	3,028 (▲6.1%)	▼0.9%
8	이탈리아	2,743	2,898 (▲5.7%)	▲1.7%
9	한국	2,092	2,346 (▲12.1%)	▲11.0%
10	호주	2,016	2,011 (▼0.2%)	▼0.8%
총합		64,257	65,000 (▲1.2%)	

5 국별 헤이그 디자인 출원 규모

순위	국가	출원수	
		'23년	'24년
1	중국	1,813	2,225 (▲22.7%)
2	미국	747	915 (▲22.5%)
3	한국	825	892 (▲8.1%)
4	독일	905	792 (▼12.5%)
5	프랑스	688	715 (▲3.9%)
6	스위스	712	627 (▼11.9%)
7	이탈리아	470	564 (▲20.0%)
8	일본	467	540 (▲15.6%)
9	영국	240	285 (▲18.8%)
10	네덜란드	236	232 (▼1.7%)
총합		8,571	9,454 (▲10.3%)